

< 녹 취 문 >

| | | | |
|---------|---------------------------|-------|-------|
| 과제명 |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 | |
| 구술자 | 오영식 | | |
| 면담자 | 강인형 | 면담지원자 | 양지원 |
| 면담일시 | 2025. 8. 25. | 면담장소 | 학산문화원 |
| 녹취문 작성자 | 강인형 | 회차 | 1회차 |

1. 어린 시절 용현동과 동양제철화학에 대한 기억 (00:00:00~00:21:00)

면담자: 오영식 선생님이시고 고향이나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그다음에 가족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술자: 저기, 용현동이 고향이죠. 용현동 561번지, 태어난 곳은 어디냐 하면요? 인하대학교 야구장 있잖아요?

면담자: 운동장?

구술자: 야구장.

면담자: 네.

구술자: 거기가 328번지인데, 거기가 옛날에 1)피난민 수용소였어요. 피난민 수용소에서 내 기억으로는 한 2~3년 살다가, 거기가 철거되면서, 용현동 561번지로 이사를 했죠. 거기다 집을 짓고 아버님이.

면담자: 선생님, 몇 년도 생이세요?

구술자: 저는 52년도. 호적상에는 53년으로 돼 있어요.

면담자: 그러면 피난민 수용소에서, 3살 혹은 4살까지 사시다가, 그리고 지금 용현동 561번지로 이사하셔서,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어린 시절은 워낙 오래된 거라, 기억이 안 나고, 기억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어린 시절에, 대학교 옆에 영국군 부대가 있었어요. 미군?

면담자: 미군 부대? 네.

구술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장난감을. 아주 어렸을 때 그때는 5살, 6살 때,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데서 장난감을 주웠던 기억이 나요.

면담자: 미제 장난감?

구술자: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 장난감들이, 애들 장난감이 아니고, 그냥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옛날에는 깡통 이런 걸 주웠겠죠? 갖고 놀 거.

면담자: 초등학교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1) 1954년 개교 직전·직후, 인하공과대학(현 인하대) 캠퍼스 부지와 주변 공터가 피난민 임시 거주지로 활용되었다.

구술자: 초등학교는 용현초.

면담자: 중학교는?

구술자: 중학교는 인천 남중학교 나왔고.

면담자: 인천남중, 고등학교는?

구술자: 인천고등학교예요.

면담자: 인천고 나오셨어요?

지원자: 되게 똑똑하셨네요.

구술자: 똑똑한 사람들은 제고 갔어요. 제고 가고, 조금 덜 똑똑한 사람들이 인고 가고.

지원자: 아니죠. 그럼, 그 차후에는?

구술자: 아니야. 우리 있을 때는, 제고가, 제일 명문고고, 우리는.

지원자: 재미있네요. 그러면, 제고가 없을 때는 인고가 최고 명문고고?

면담자: 혹시 어린 시절에 동양화학 공장, 혹시 기억에 남는 잔상이나 기억이 있을까요? 이미 지나?

구술자: 이제, 초등학교 때죠. 초등학교 때 주로 소풍은, 어디 갔냐면, 문학산이나 송도로 갔어. 그러면 용현초등학교에서 여기를 꼭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 옛날에는 포장이 안 된 신작로라고 그랬죠? 포장이 안 뒀어요. 포장이 안 된 길을 걸어서 소풍 가던, 그러니까, 동양 화학을 지나서 가게 되는 거죠. 그 기억이 나요.

지원자: 걸어서 가셨어요?

구술자: 그럼요. 걸어서 가. 그럼, 저, 위쯤 되면, 위가 어디냐 하면, 지금 송도역 KTX 공사하는 데 있어요. 거기.

면담자: 네. 있어요.

구술자: 거기에, 보리밭이 많았어요. 보리, 그래서 기억나는 게, 그냥 봄 소풍 가면은, 보리가 익어서 산들산들 바람 부는 거 보면, 아주 뭐라고 할까? 어렸을 때도 그 목가적인 기억이 아직도, 잔상에 남아 있죠.

면담자: 그러면은 동양제철화학은, 긴 담벼락을 그냥 걸어가신 그런 기억이 있으신 거네요. 그리고 선생님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구술자: 저는 부모님하고 형제.

면담자: 동생분?

구술자: 누나. 우리 누나하고 동생 둘.

면담자: 혹시 부모님의 고향은 어디세요?

구술자: 저기, 황해도 웅진에 계시다가, 6.25 때 피난 나오고.

면담자: 여기로 오신 게 아닐까요?

구술자: 그 피난민으로,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와서, 만석동인가, 만석동에 사시다가, 지금

인하대 야구장 자리. 그쪽으로, 야구장 자리가 피난민 수용소니까, 거기 살다가 아마 철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때, 용현동 561번지로 이사해서, 거기서 제가, 한 20년 이상 살았어요.

지원자: 혹시 561번지가 어디 쪽인가요?

구술자: 어디 있냐 하면, 좀 넓어요. 바운더리(Boundary)가. 561번지가 넓어요. 번지수가 지금은 몇 동이지? 저기지.

지원자: 근처에 어떤 게 있었던 곳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도 돼요.

구술자: 거긴 다 없어졌으니까.

면담자: 지금은 뭐가 있나요?

구술자: 저거지 뭐야. 용마루?

면담자: 용마루 아파트?

구술자: 그게 전국으로 대단지로 돼 있지. SK인가?

지원자: 용마루 건너편, 아파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술자: 아니, 내가 산 데가 어디냐면?

지원자: 유원아파트?

구술자: 아니야. 아니, 물탱병이 거리 있죠?

면담자: 네.

구술자: 물탱병이 거리, 사거리. 이 거리는 다 알 거 아니야?

면담자: 네.

구술자: 여기가 용마루. 무슨 아파트인가? 이게 이 아파트를 얘기하는 한 거예요. 대단지 아파트?

면담자: SK스카이뷰요.

구술자: 이게 SK인가? SK, 대지에서 우리 집이 이만큼 있었어.

지원자: 우리 집은, 여기 하나.

구술자: 그래 맞아. 이렇게 우리 집이, 여기 정도 있었어. 내가 태어난 우리 집도 여기 있었어요. 길옆에 아버지가 또 3층 건물을 지었어. 그때 다 길옆에다가 할아버지도 여기서 살았지.

면담자: 20년, 거기서, 사신 거네요. 그렇죠?

구술자: 여기서 한번 이사를 했지. 여기서 이렇게 이사해.

면담자: 그러면, 혹시 어릴 때 여기가 SK 정유였잖아요? 거기 저유고나, 그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구술자: 나죠. 지금, 여기 SK 아파트 대단지 아니예요? 딱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히타치라고, 옛날에 히타치, 저기 일본 회사 있지?

면담자: 전자제품 회사.

구술자: 히타치고, 일본이 물러나가면서 여기가 2)POL(Petroleum Oil and Lubricants Depot)로 변했어요. 그게 POL이 뭐냐면, 미군 부대 유류저장소야.

면담자: 네. 미군 부대.

지원자: 아버지가 거기 계셨어요.

구술자: 여기, POL, 미군 부대 유류저장소가 있었어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가 나중에 SK 정유로 변했지. 여기서도, 한 번 변한 거예요. 여기가 옛날에 대한전선 이렇게 있었다가, 없어지고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맞아요. 이렇게 여기가 용학초등학교, 여기쯤 있다면, 이렇게 여기 살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동양화학이 이렇게 있으면, 용학초등학교에서 쪽신작로이지. 그냥 2차선 정도는 될 거야. 저기, 인도도 없었지. 옛날에는 여기 쪽 걸어서, 동양화학 앞을 지나서, 송도로 소풍 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옆에 기억나는 건 하나. 보리가 있는데, 보리밭에 바람이 확 날리면, 어린 시절에도 ‘이쁘다!’, 이런 기억이 나요.

지원자: 소풍을 거기로도 올라갔지만, 3)진흥영업 쪽으로도 올라갔잖아요?

구술자: 거기는 안 갔어요.

지원자: 진흥 영업 쪽으로 올라가면, 저기 신기촌 쪽에, 거기로도 바로 올라가면, 거기가 4)화장터였거든. 진흥 영업 뒤가. 그 올라갈 때 도자기를 밟으면서 올라가는 거야. 바스락바스락 밟으면서, 그러니까 문학산에 가는 길이 여러 군데잖아요?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지원자: 맞아요. 그때는 제2 경인이 없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막힌 느낌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갔어요.

구술자: 그리고 그 길옆으로 수인선 다니는 건 아시죠?

면담자: 네.

구술자: 수인선. 이걸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지금 다 많이 바뀐 거로, 수인선이 있었고.

면담자: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셨네요.

구술자: 유년 시절, 기억나는 것, 하나가 더 있어요. 동양화학이 이렇게 있고, 여기,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송도 가는 길. 그러면 이 옆에, 지금은 다 복개가 됐는데, 5)학익천이 있어요. 이렇게 학익천이 쪽 있어서, 이렇게 바다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바다예요. 그럼, 여기 조그마한 계들 있잖아. 계들, 조개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물이 흘렀는데, 동양화학에서 폐수가 나왔어. 폐수, 여기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흙플러스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천이

2)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미군이 서해 연안과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군수물자를 보관·분배하기 위해 설치한, 학익동 미군 유류저장소(POL, Petroleum Oil and Lubricants Depot)이다.

3) 진흥 영업(眞興 營業)은 학익동 일대에 있던 장례 관련 민간 영업소·장의업체이다.

4) 일제강점기부터 인천시의 공식 화장장이 학익동에 설치되어 있었고 1970~80년대까지 운영되었으나, 도시 팽창과 주거지 확대로 민원이 심해졌고, 이후 부평 송화원 등 다른 시설이 확충되면서 폐쇄되었다.

5)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을 흐르는 소하천으로 학익동 노적산 부근에서 발원해 학익동 일대를 지나, 인천항 방면(내항 수역)으로 유입되었다. 인천시 도심하천 복원계획(2000년대)에서 학익천도 포함되어 ‘정비·복원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흘렀어요. 위에서부터 쪽 천이, 지금 다, 그렇게 됐죠? 여기서 수영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어렸을 때 친구들과하고 여기서, 수영도 하고, 여기는 바다니까, 여기서 수영하던 생각이 나오. 내 친구가 여기 살았어. 여기 흠플러스 자리에. 거기에 친구가 살아서, 애네 집 놀러 가서, 여기가 조그만 개울이에요.

면담자: 냇가?

구술자: 지금은 그게 얼마나 될까? 다 복개됐겠죠?

면담자: 네. 지금 다 복개됐죠.

구술자: 폭이 3~5m의 학익천이 흘렀어요. 위에서부터 흘렀고 흘러내리는 물이 바다 들어가는 하천이라고, 우리가 그전에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죠.

면담자: 그럼, 금방 말씀하신 폐수가 흘렀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구술자: 그런데, 폐수가 깨끗했어요. 의외로.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냄새났으면, 수영을 못했죠. 아마, 정화시켜서 나왔을 거야. 그게,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거야. 그게 폐수면, 피부병이 난다거나, 화학 약품 같은 게, 부작용이 있었을 텐데, 한 두세 번 거기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전혀 피부에, 트러블(Trouble)이 없었으니까. 그 깨끗한 물이. 여기서, 나중에 수영장을 만들었잖아? 언제쯤 되냐 하면은, 1965년? 68년? 내 중학교 때, 그게 6)새인천 풀장, 여기 내가 기억이 있는데, 풀(Pool)이 두 개가 있었어. 풀(Pool)이 두 개인가? 두 개가 있었는데, 65년도 내지 67년도? 내가 중학교 때, 지나갈 때 있었거든. 풀장이 있었어. 맞아요. 여기가 왜 풀장이 있었냐면, 68년도에 거기다 매립을 했어요. 68년도에 동양화학에서 매립을 했는데, 매립하면, 그냥 벌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엄청, 나가는 거야. 그게 유지세! 그러니까는 땅을 놀리는 거는 세금이 가중되거든요.

지원자: 요새, 빈 땅에 모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구술자: 그러니까 세금이 세게 나오니까, 뭐를 만들었냐 하면, 그 당시에. 내가 추측하는 거야. 근데 중학교 시절에, 내가 그걸 알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금 때문에, 개들이 풀장을 만들고, 거기다 예비군 훈련장을 만드는 거야. 그 저기 앞에 지금 아파트 지대, 거기다 예비군 훈련장을 만드는 거야. 그 세금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나중에 공무원이 돼서 알아보니까 거기 있는 공장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세금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풀장이 있었고, 거기, 인천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였었냐면, 송도유원지죠.

면담자: 네.

구술자: 송도유원지하고 이게, 이름이, 내 기억에, 새인천 풀장 같아.

면담자: 맞아요.

구술자: 새인천 풀장 같아. 맞네.

6) 동양화학이 갯벌·습지를 매립해 부지를 조성하였고 이 매립지 일부가 훗날 새인천 풀장 등의 부지로 활용되었으나 매립한 부지라 매립 기반이 약해 침하·누수가 잦았고, 관리비(유지세)가 과도하게 들어갔다. 인천시도 당시, 매립지 기반 위 공공시설 유지비용이 커서 재정 부담을 호소하였다.

면담자: 네. 맞습니다.

지원자: 거기 유원지가 있어서 많이 놀러 갔어요.

구술자: 그때, 맞아. 그거 파라솔도 막 하고, 그래서 풀(Pool)이 2개인가? 2개였던 것 같아.

지원자: 풀(Pool)이 2개예요.

구술자: 그냥 두 개였던 거죠. 하나는 좀 얇은 것, 하나는 조금 깊은 것,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게 65년도부터 68년도인가? 하여튼, 그 사이야. 그러면 거기다 물어보면은 동양화학 역사에 나올 거야. 그게 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으로 얘기 하면 위치가 대략 어디쯤 될 거냐면, 송암미술관 있죠? 송암미술관 근처 같아.

면담자: 동양화학 사택 근처였나요?

지원자: 동양 사택? 동양화학 사택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동양화학 사택은, 이쪽 끝으로 있었죠. 이쪽으로. 유원지 있는 데 있지 않았어요. 거기는 별판이야.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엄마 친구, 남편이 거기 부장님이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또 음식 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근데 엄마 친구는 이대 나와서 막 사치스러운 사람이고, 그 당시에 손톱 이렇게 길렀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엄마가 뭘 하면은, 막 해서 나보고 거기 가래. 그러면 우리도, 예쁜 아줌마가 또 우리 오라고 하니까, 또 가면 우리도 앉혀놓고 마사지시켜주고 막 그랬어. 그래서 사택은 거기 있지 않고, 동양화학 쪽에 있었어요.

구술자: 맞아 거기는 사택이 없었어요. 사택을 지을 수가 없어. 거기는. 사택이 없었어요.

2. 재직시절 동양제철화학에 대한 기억 (00:21:01~01:05:18)

면담자: 그러면, 오영식 선생님, 첫 직장이 인천 구청이셨나요?

구술자: 첫 직장이요? 네, 인천 구청. 어디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는 경기도 인천시야. 그래서 시험은 어디 가서 봤냐면, 인천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경기도에서 발령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인천으로 와서 제일 내가 먼저 발령된 데가, 용현 2동이야. 연고지 배치라고 그러지? 연고지 배치라고 해서.

면담자: 그러면 용현2동 동사무소. 그 당시 용어로?

구술자: 그 당시에는 무조건 합격하면, 동사무소, 5년간 근무를 해야 돼.

면담자: 첫 발령을 받은 이때가 몇 년도였나요?

구술자: 1974년도 3월에 받았어요.

면담자: 그러면, 공무원을 하시게 된 혹시 계기가 있으실까요?

구술자: 계기 가요? 글썄요. 뭐 특별한 계기는 없는 거고. 그 당시에는 직장 얻는 게 상당히 어려웠고, 74년도에. 저는 재수하다가 공부를 안 했어요. 재수하다가 이제 군대가야 되니까, 그래도 직장을 해놓고 군대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 거야.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시험을 봐서, 합격했죠. 그때가 한, 8 대 1인가? 6 대 1 정도 됐을 거야. 지금처럼 세지 않았어

요. 그러니까 합격했지. 셋으면 떨어졌지. 그래서 제일 먼저 발령된 게, 용현 2동이죠. 지금은 이제 다 헐었겠지만.

면담자: 그다음에는 어디로 옮기셨어요?

구술자: 그다음에, 부평 6동 동사무소.

지원자: 범위가, 되게 크네요?

구술자: 그때 인천시 발령이니까, 그렇지. 자치구가 아니니까. 전혀 없었던 거죠.

면담자: 여기는 몇 년 근무하셨어요?

구술자: 2년. 다음에는 시청 7양정과.

면담자: 양정과 뭐예요?

구술자: 양정과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쌀 하고 있는 거야. 양곡하는 게 양정. 근데 그 옛날에 양정과는 얼마나 쟁나 하면, 인천에 양정과는, 거기는 아무나 못 가는 데야.

면담자: 그러실 것 같아요.

구술자: 이권이 엄청 많은 거야. 그 당시에 1980년도에.

면담자: 네.

구술자: 거기는, 그냥 198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흉년이야. 그때 전두환 정권 때, 기후가 안 좋아서, 쌀이 흉년이야. 계속 2년인가 3년 동안 흉년 해요. 그래서 쌀을 전부 수입을 하는 거야. 뭐, 미국산 8)칼로스(Calrose), 일본 쌀, 태국 쌀, 호주 쌀, 저기 안남미 그렇지, 베트남에서 수입을 엄청 해. 17개국인가? 수입했을 때, 그때의 양정과는 농수산물하고 직접 다른 데가, 하여튼 양정과. 거기까지.

면담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양정과는?

구술자: 한 2년, 보통 2년, 근무해요.

면담자: 이렇게, 순환 근무하시니까. 양정과에서 어디로 가셨어요?

구술자: 그다음부터 이제 남부 맨(Man)이 되는 거야. 남구청.

면담자: 아 남구.

구술자: 남구청 총무과에서. 그렇지. 그때는 인사권을 갖고 있어서, 그 당시에는 기획실 이런 데가 없었어. 그러니까 공보실 이런 데가 없어. 우리 행정기관, 다 하는 거야. 우리 행정계 6명이, 기획, 예산, 홍보, 이런 거, 다 하는 거. 예산서부터. 그러니까, 파워(Power)가 막강했지. 그 대신 무지, 고돼.

면담자: 너무 일이 많으셨구나!

7) 양정(糧政)은 문자 그대로 군량·식량 행정을 뜻하고 식량 배급, 양곡 관리, 배급제 집행 등을 담당하는 행정 부서 이름이다. 특히 1960~70년대 군사정권 시기까지, 쌀·보리 등 양곡이 국가 통제 품목이었기 때문에 각 시·도의 행정조직에 양정과는 설치돼 있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정국/경제산업국 산하 농정·유통 담당 부서로 흡수·개편되었다.

8) 칼로스(영어: Calrose 캘로즈)는 1970년대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재배되는 자포니카 계열의 쌀 품종이다.

구술자: 일이 많아서, 일요일 날, 쉬는 날이 없어.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이 없어.

면담자: 아이고야. 여기는 몇 년 근무하셨을까요?

구술자: 거기서 보통 한 3년 된 것 같아.

면담자: 다음은?

구술자: 바로 다시 시청.

면담자: 시청? 이때도 계속 경기도인가요?

구술자: 그때는 이제 시청을 지금 들어갈 때는 있죠. 그때는 직할시가 된 거야. 직할시가 새로 지은 건물에 있으니까, 저기 인천 중구청 자리에서, 구월동으로 옮겼어요. 옮겼으니까 그 당시에 직할시.

면담자: 시청 무슨 과에 근무하셨어요?

구술자: 시정과. 인천의 시정을 전부 총괄하는 데지.

면담자: 시정과에 몇 년 계셨어요?

구술자: 2년에 왔다 갔다.

면담자: 다음은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구술자: 다시 또 진급해서 남구.

면담자: 남구에는 몇 년 근무하셨어요?

구술자: 한 3년 근무해요.

면담자: 계속 남구에 계셨어요?

구술자: 그다음에 이제 송의1동 동사무소에 사무장.

면담자: 사무장?

구술자: 거기서 사무장 2년 하고, 다시 진급해서, 저기 구청 사회과.

면담자: 남구청 사회복지?

구술자: 사회복지 담당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뭐냐 하면 노정, 그 당시에는 굉장히 노사가 심했을 때야. 노사, 노태우 정권 때, 노사 문제가 굉장할 때, 맨날 파업하고 그럴 때. 그거 하는 업무예요.

면담자: 조정하는 업무, 조정도 하시고? 계속 이제 남구청에 계신 거죠.

구술자: 거기서 어디 갔냐? 공보실이었지. 공보실. 공보계장 했지. 그때 공보계장.

면담자: 지금 홍보실 역할? 미디어 홍보실에서 미디어가 빠지는.

구술자: 공보실 갔다가, 시청으로 갔구나. 다시.

면담자: 또 시청으로 오셨구나. 시청으로.

구술자: 여기, 자꾸 옮겨 다니니까. 보통 2년이, 그 당시에는 부패가 심하니까, 고인 물이 썩는다고, 그래서 보통, 2년 이상은 안 해요.

면담자: 문화예술과. 요즘에도 문화예술과에서 내가 또 연결되는 게 있지. 문화예술과에서 9)

송암미술관, 그때 10)이회림 회장과와 애깃거리,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하자면, 지금 돌아가신 이회림 회장.

면담자: 맞아요. 초대 회장님.

구술자: 그분이 1914년생인가? 보니까, 1914년생이야. 그러니까 개성의 마지막 상인 이렇게 해서, 이회림 씨가 그 당시에 전화가 왔어. 나한테. 좀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시(市)에 있을 때, 어디서 만날까? 그랬더니, 송암미술관에서 만나세요. 그래서 갔지. 근데, 그분이 진짜 덕장이라고 그러지? 덕장보다 덩치가 좋아요. 아주 후덕하게 생기셨어. 키가, 되게, 내 기억에는 키도 크고, 풍채도 좋으셨어. 그분이, 이제 갔더니, 송암미술관이 그 당시에는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거야. 나한테 좀 봐달라고, 간 거야. 근데 사실은 내가 문화에 대해서, 별로 조예가 없던, 소속만 문화예술과지.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와서 좀, 우리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니까, 가서 쪽 구경하고, 지하 저장고까지 갔어요. 그분이 잘 안 열어주는데, 가서, 지하 저장고까지 쪽 보고, 수집한 것들 있잖아요?

면담자: 네. 맞습니다.

구술자: 지금, 거의 있을 거야. 지금 송암미술관이 인천시에다 기부채납 했나요?

면담자: 네.

구술자: 그렇죠. 며칠 전에 지나가서 보니까 ‘인천시 송암미술관’ 이렇게 되어있더라고. 속으로 시에다 기부채납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은 동양화학 개발하면서, 개들이 이거 한 거야.

면담자: 맞습니다.

구술자: 이거 줄 테니까, 제발 잘 좀, 해달라고 하는 제스처(Gesture)지. 그게. 근데 어쨌든간에 그분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그 사람, 그러니까 호(號)호일 거야. 아마, 그렇죠? 그분을 그때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덕장이고, 그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은, 아주 인자하게 생겼고,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조예가 많았어. 나보다 더. 우리는, 행정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입하려면, 이게 모조품이냐? 진품이냐? 이런 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조예가 있어야지. 이게 가치가 있냐? 작품이 옛날 그런 걸 하는 거니까, 굉장히 애착을 가졌어. 돌아가셔서, 여기는 인천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굉장히 애착을 가졌던, 분이야

면담자: 그게 느껴지셨나 봐요.

구술자: 느껴지지.

면담자: 이때가 몇 년도였어요?

9) 송암미술관의 연혁은 동양화학이 ①1989.11 서울 종로 수송동에서 개관 → ②1992.10.31 인천 학익동으로 이전 → ③2005.06.13 인천시에 무상 기증 → ④2007.12 인천시립박물관 분관 편입하였다.

10) 화학산업의 기초 재료인 소다회를 국산화해 대한민국 화학산업의 기초를 다진 동양화학의 초대 회장이다.

구술자: 92년도, 정도 됐을 거야. 내가, 대강, 92년도에 맞아.

면담자: 미술관을 보여주시면서, 혹시 어떤 얘기를, 뭔가를 하셨나요?

구술자: 깊은 얘기는 기억이 안 나. 쪽 전시한 거 쪽 보고, 하여튼 내가 느낀 게, 워낙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얼핏 기억나는 게 지금 기억나는 게, 고종 황제의 회의용 탁자가 있어. 그거 수집한 거야. 근데 다 손으로 조각한 거 있잖아? 의자가 지금도 있을 거야. 그거, 물어보니까 생각나는데, 다 의자를 조각해서 있는데 고종황제가 왕실에서 사용한.

면담자: 네.

구술자: 거기, 지금도 아마 이렇게 웅장하게 조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주, 한번 가서 보세요. 나는 그게 기억나. 그리고 미술품들은 워낙 많으니까, 기억이 안 나지. 이게 워낙 그때 몇 천 점 됐을 거예요. 가치로 따지면,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았겠지.

면담자: 이때가, 이회림 회장님 처음 뵈 건가요?

구술자: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이자 뭐 그렇게 저기 할 때, 그 양반이 좀 얼굴 좀 보자고 그러니까 갔지. 또 이런 지역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예술품이 모여 있는 장소가 이렇게 있다고,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그런, 내가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지금 그 무대에서 나를 만나자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보고, 미술관, 아! 맞아! 11)중앙에다 등록하려고 하면서, 등록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기억난다!

지원자: 얘기를 나누시다 보면, 기억이 나요.

구술자: 등록 때문에, 나를 부른 거야. 등록을 도와달라고.

면담자: 그래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해결이 되었나요?

구술자: 미술관 등록 문제 때문에, 맞아. 만난 이유가 있었겠지? 등록해야 되잖아? 그렇지? 맞아요. 등록 문제 때문에.

면담자: 그리고, 시청 문화예술과에 계시다가 또 어디로 옮기셨을까요?

구술자: 감사실.

면담자: 줄을 잘 쓰신 거 아니에요?

구술자: 아니야. 여담인데, 나는 어디 가자고 한 적이 없어. 지금 얘기한 대로 감사실 하면, 어? 하잖아? 옛날에 그야말로 낫발이, 좋은 데가 감사실이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감사실 가려고 막 싸운 거야. 서로.

면담자: 근데 제3자가 가셨네요?

구술자: 저기, 뭐라고? 그러다 압력이 들어오는 거지, 양쪽에서. 그러니까, 그 계장이 어? 이거 봐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깐, 나랑 같이 근무했었거든. 옛날에. 둘 다

11) 송암미술관은 1992년 12월 25일자 매일경제 기사에서 이미 “인천시 학익동 송암미술관”이 문화부 등록 미술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안 해주고, 가만히 있는 나를, 어느 날 갑자기 발령을 낸 거야. 나는 가는 줄도 모르고, 감사실로 간 거야. 그런 일이 있어요. 서로 싸우니까, 누구를 해줄 수가 없잖아? 이권이 있으니까.

지원자: 아니, 우리 아들이 국세청 다닌다고, 그랬었는데, 입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요.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감사실이 센데, 지금은 조금 달라. 옛날하고.

면담자: 청렴하신가 봐요.

지원자: 청렴하니까.

면담자: 네. 그건 아세요?

구술자: 다 말아서.

지원자: 지금은 다 그래.

구술자: 지금은 말아서, 옛날에 부정이 많을 때, 그 시절에 그랬죠. 그 시절에는, 감사실에 나가면, 야, 내 거 좀 봐줘. 내 거 좀 빼줘.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네 마음대로 해.

면담자: 보는 눈이 많아서요.

구술자: 그래서, 감사실 갔지.

면담자: 그 감사실에서, 또 어디로 가셨을까요?

구술자: 이제 남구.

면담자: 남구 어디로 오셨어요?

구술자: 그 당시에, 교통과장으로 온 거야. 교통과장, 사무관 돼가지고.

면담자: 승진하셨어요?

구술자: 시험, 본 거지. 그때 남구 와서 시험 봐서 합격해서 사무관은 시험을 봐야 돼. 그때는 시험을 봤어. 그게 4급인가? 5급인가? 그 시험 합격해야 돼.

면담자: 공무원 연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험을 보나요?

구술자: 지금은 시험을 안 봐요. 점수죠. 그 당시에, 시험 떨어진 사람, 자살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거 공부 열심히들 했어요. 떨어져서. 근데 한 분은, 내무부에 있다가 인천으로 온 거야. 진급하려고, 세 번인가 떨어진 거야. 세 번 떨어지고, 7번 떨어진 사람도 있어. 6~7번 떨어지는 사람은, 집에 안 가고 여관에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나는 그때 한 번에 합격했어.

면담자: 공부를 안 하셨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지원자: 아니, 인고를 들어가려면, 옛날에는 시험 봐서 가잖아요? 우리 아주버님이 인고 나왔는데, 지금도 앉으면 자랑해.

구술자: 자부심은 강하지. 전통이라고 하지. 100년이 넘잖아요. 100년 넘은 자부심은 있어. 단결도 잘 되고.

면담자: 그러면은 남구청에서 교통과장?

구술자: 교통과장, 하다가 청소과장에 간 거야. 여기, 이제 스토리(Story)가 나오지. 청소과장으로 연결이 돼. 청소과장할 때 스토리(Story)가.

지원자: 길었다. 여태까지.

구술자: 이제,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1998년이야. 대략 이제 97년인지 98년인지 모르겠어. 그 정도. 청소과장 할 때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 정도야. 그 당시에 ¹²⁾큰비가 왔어요. 큰비가 왔는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전화가 온 거야. 현장에 나가 보라고, 나가 본 게 동양화학이야.

면담자: 현장이 동양화학이었네요?

구술자: 나가 봤더니 지금 폐석회. 여기 동양화학에서 소다회를 생산하잖아요? 생산품이 그 당시에 소다회야. 소다회인데, 그게 생산하면서 찌꺼기, 커피 하면, 커피 찌꺼기 나오듯이 그게 소다회를 생산하고, 남은, 폐석회가 계속 쌓였는데, 그게 비에 흘러내린 거야. 그래서 운동화, 그때 구두 신었지. 내가 그때 공무원 시절에, 구두를 신고 나갔는데, 송암미술관 쪽으로 막 들어간 거야. 하얀 게 이만큼씩, 발목까지 빠지는 거야. 되게 느낌 안 좋은, 물컹물컹한 거지. 물컹물컹한 거야. 이게.

지원자: 왜, 새인천 유원지 갔을 때도, 그런 느낌들, 딱 많아. 하얀 게 있었지. 그 새인천 유원지, 거기도, 그 가장자리가 다 그거였어요. 밟고 지나가는 길에, 폐석회를 깔아놓고 묻었나봐.

구술자: 이게 폐석회인데, 그거에 딱 들어가니까, 막 빠지는 거야. 한참 빠지는 데. 송암미술관 주변이, 다 빠져. 이게, 그때 나도 몰랐지. 왜, 내가 나갔냐면, 폐석회니까, 이게 청소과야. 청소과로 간 거예요. 폐기물 쓰레기, 이렇게 말이야. 폐기물로 해석해서, 이게 청소과로 와서, 내가 나간 거야. 직원하고 같이 나간 거야. 그때, 내가 폐석회를 처음 안 거야, 관심이 없었지. 그전에는.

면담자: 직접 담당하신 일이 아니라서?

구술자: 그래요. 관심도 없다가, 내가 나가 보니까, 쓰레기만 청소하고, 길거리 청소만 했지.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지원자: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날 일이에요. 그렇죠?

구술자: 아무도 관심 없다가, 서로 이 업무가 누구 거냐? 이거, 쓰레기, 쓰레기다. 그래서 청소과장으로 나갔는데, 이게, 이만큼 빠지는 거야.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폐석회가 전혀 독성이 없어.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뭐, 화학적으로 유해하거나, 뭐 물론, 흙보다는 무해하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독성이 있거나, 유해한 거 아니야, 거의, 무해하다고 판단한 거야. 분석을 해보면.

면담자: 유해물질은 아니냐?

구술자: 유해물질은 아니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정이 나왔어요. 검사를 하고, 그러면서 폐석회 문제가, 여기가 재개발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이 쪽 세월이 흘러서 여기 동양화학

12) 디지털 미추홀구문화대전에 따르면, 1997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 집중 장마로 인해 강우량 66.5 mm, 재산 피해 약 767만 9천 원이 발생했고 이 통계는 미추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군산으로 이사를 하고 또 유해 공장들, 굴뚝 산업이 없어졌죠. 빠지는 거지. 외곽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동양화학에서 이 사업을 펼치는 거야. 그 안에 지금 얘기하는 거, 저기 새인천 폴장 같은 게 다 없어지고 뭐가 생겼냐면, 세월이 흐르면서, ¹³⁾한불화학이 1975년도에 생기는 거야. 그 정도의 나중에. 정확한 건 확인해 보세요. 68년도? 70년도 정도에, 그리고 그게 한불화학이 뭐냐면, 화이트 카본(white carbon)을 생산하는 거야. 화이트 카본(white carbon)이, 그게 뭐냐 하면, 신발 산업 하는데, 그게 원료가 되는 거예요. 보강제, 이런 거래. 신발 산업에 기여하면서, 한불화학이 생긴 거래요.

면담자: 동양화학 협력업체? 같은 계열?

구술자: 같은 계열이에요. 이게 동양화학 단지 안에 있어. 그렇지? 그 안에 자기 땅 안에 남의 회사가 들어올 수 없지. 한불화학이 들어오고, 80년도에는 ¹⁴⁾한국카리화학이 들어오는 거야. 카리화학, 이게 한불화학에서 화이트 카본(white carbon)은 그전에 신발 산업이, 옛날 우리나라가 막 발전했잖아요? 예전에. 원료가 되고 뭐 그런 거래. 그다음에 한국카리화학이 80년도에 또 거기에, 예비군 교장 뭐 이런 데 했던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한불 화학이, 한국카리화학이 생기고, 삼광유리, 금강유리 공장을 인수 했나? 모르겠어.

지원자: 삼광유리가 그쪽에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구술자: 삼광유리가 인수돼서 그쪽에 있었어요. 그다음 동양화학에서는 표백제, ¹⁵⁾옥시크린이라는 거, 처음 생산된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 연기 산업이 없으면, 옥시크린 해서, TV에서 막, 나온 거야. 옥시크린을 생산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런 제품이 지금은 뭐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 기껏해야, 빨랫비누, 세숫비누 정도인데, 이제 옥시크린을 생산하는 거, TV에서 선전할 정도로 생산했어요.

지원자: 준비 많이 해 오셨는데요?

구술자: 내가 이렇게 찾아봤잖아. 이게,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야. 내가 기억이 안 나서, 내가 몇 년도에 했나? 보니까 연결이 돼. 그래야 연결이 되지.

면담자: 그러면 동양제철화학하고 그때 인천시청 혹은 남구청이랑 교류 근무를 하셨나요?

구술자: 그런 건 없었어요. 그전에 잠깐, 저기 산업, 기업체하고, 공무원하고 교류했던 데가 있었어요. 1년과 2년 사이에.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느 회사에 가서, 서로 이해하자는 거지.

13) 1975년에 프랑스의 롱프랑사(Longfransa)와 동양화학이 50:50 합작으로 설립되었고 주력 제품은 화이트 카본(white carbon), 규산소다, 아디핀산 등이다. 특히 화이트 카본(white carbon)은 신발, 타이어의 보강제로 인천 공장에서 연간 약 6만 5천 톤 생산되어 국내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되었다.

14) 1980년, 동양화학 계열사로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한국카리화학 공장이 설립되었고 탄산칼륨, 연산 탄산칼륨 등을 생산하였다. 1991년 7월 28일, 한국카리화학 공장에서 염소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당시 안전 문제에 큰 이슈였다. 이 사고로 인근 회사인 삼광유리 공장에서 야간작업 중이던 노동자 69명이 가스에 중독됐다(출처: 인천투데이(<https://www.incheontoday.com>)).

15) 옥시크린은 1984년 동양화학 계열의 생활용품 브랜드였으며, 산소계 표백제 시장에서 대표적인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서로 이해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시책이 있었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기억이 나네. 여기 와서 근무하고, 저기 구청 가서 근무하고 했는데, 좀 형식적이었어. 취지는 좋았는데 별로 그렇게.

면담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차원 정도였어요?

구술자: 거기 가서, 뭐 열정으로 하거나, 뭐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취지는 그런 취지로, 지금 내가 기억이 나는데, 1년인가? 2년 사이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제도가 있었어.

지원자: 근데, 선생님의 경우는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으셨던 거네요?

구술자: 그런 건 없었고요.

면담자: 그러면, 그때 폐석회가, 지금 비에 거기 쓸려 내려와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구술자: 이제 그게, 세월이 또 흘렀죠. 이제, 폐석회를 내가 발견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내가 이제 국장이 됐어요.

면담자: 언제요? 남구?

구술자: 예. 남구 사회산업국장을 한 게 언제쯤 됐냐? 하면, 기억이 나. 한, 2010년? 그래서 사회산업국장을 할 때, 문제가 된 게, 폐석회가 또 연결되는 거야. 이것을, 폐석회를 없애야 여기다, 저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장 부지가. 아파트 짓기 위해서 옛날에, 지금 SK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정유가 있었잖아요? SK가 있었잖아요?

면담자: 있었어요.

구술자: 거기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땅에서, 기름이 나온 거야. 기름을, 땅을 다 해서, 정상화하는 데도 한 3~4년 걸렸어.

면담자: 네. 맞습니다.

구술자: 내 기억에, 그러면서 내가 사회산업국장할 때, 그것도 청소과 갔던, 내 소관이 아니야. 그러면, 저기를 폐석회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 지으려면, 폐석회가 있는 상태에서, 허가가 안 나요. 아파트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동양화학에서 엄청, 고생했어. 내가 기억하기는, 그거를 외부에 반출시키냐? 그다음에, 섬으로 가냐? 그럼 그 안건이 없었는데, 외부로 반출을, 맨 처음에 했는데, 받을 데가 어디 있어? 안 받아주지. 고민하다가 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 10만 평 그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묻는 거예요. 묻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폐석회의 성분이 물만 먹으면 이게 흠물흠물해지잖아? 그래서 어떤 방법을 실시했냐면, 100m로 깊이 판 거야. 트럭이 계속 들어가서 굉장히 넓게 팠어요. 커다랗게 판 거야. 100m 정도 들어갔을 거야. 아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폐석회를 깔고, 300만 톤인가? 숫자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 위에 흙을 깔고, 폐석회를 깔고, 이제 굳으면 되는데. 뭐야? 시루떡 있잖아요? 팔하고 쌀하고 하는 식으로, 흙하고 그다음에 폐석회. 이게 굳히게 하는 거지. 비가 와도 흠물흠물하지 않게, 지반이 흔들리지 않게, 또 깊으니까, 거기까지 빗물이 안 들어가잖아? 그렇게 해

서, 한 몇 년간 묻었어요.

면담자: 굳히기를 한 거네요?

구술자: 그렇죠. 굳히기죠. 아까 얘기한 대로 폐석회. 흙, 폐석회. 1m씩 그렇게.

지원자: 아파트 지을 때, 우리 작년에 행사할 때, 땅이 질퍽질퍽하지 않았어요? 나, 폭 빠졌잖아. 거기서.

면담자: 그래요 여전히 질퍽질퍽한가요?

구술자: 거기는 안 묻혀 있어.

면담자: 시티오씨엘(City Ocoel)?

지원자: 아니, 그 아파트, 지금 신축 현장, 웅진군청 건너편, 거기가 가로수 심어 놓은 데, 내가 모르고 밟아서, 여기까지 썩 빠졌었잖아요? 근데 거기뿐이 아니고, 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 생각은, 좀 폐석회 재질이랑 이건, 또 다른가 싶은 거죠? 그 동네가 그 동네잖아?

지원자: 네. 비슷한 동네이긴 하지만.

면담자: 그러면 국장님으로 계실 때, 그 동양화학이랑 되게 교류가 많으셨겠네요?

구술자: 잘못하면, 그 당시에는 잘못 교류했다가는 오해받으니까.

면담자: 서면으로 하셨어요?

구술자: 그렇죠. 서면으로, 거의 현장 위주로. 그 당시에 16)의회가 생겨서, 의회에서 많이, 관여를 했지.

면담자: 구에 의회가 생겼나요?

구술자: 그럼, 그때 의회가 있었어요. 1991년도에 생겼을 거야. 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해서, 91년대에 생겼을 거야. 아마 기억에, 의회가 관여하는 거야. 그 현장을, 많은 의회 의원들이 가서 또 그냥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 할 얘기가 많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야 되는 거야. 적당한 선에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나머진 의회에서 편하게 가서 했어요.

면담자: 그러면 혹시 동양화학, 이 건을 처리하시면서 기업의 입장을 좀 이해하는 그런 계기도 되셨나요?

구술자: 기업을 이해하는 거는 뭐,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살아야 되잖아요? 기업이 살아야 되는 거고, 또 기업이 살아야, 우리 주민들도 살고, 일자리도 많고, 같이 가야 돼. 근데 아까, 제가 깜빡 얘기 안 했는데, 이 동양화학에 많은, 사람들이 취직했지.

지원자: 혹시 뭐 어떤 규모나 됐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구에서는 되게 큰 회사였지요?

구술자: 큰 회사지. 인천에서도, 남구에서도 제일 큰 공장이지.

면담자: 많이 근무하실 때는 '2천 명 정도, 근무하셨다'라고 합니다.

16)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1991년 4월 전국적으로 기초의회(시·군·구의회)가 처음 개원했다. 따라서 인천시 남구도 예외 없이 1991년 제1대 남구의회를 구성·개원했다.

지원자: 데이터도 있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쭙봤어요.

구술자: 우리가 생각할 때 큰 회사다.

지원자: 우리가 말대로면, 조개 고개에 사는 거잖아요. 그 근방에서 거기 다닌다고 하면, 진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다시피 하고. 50집에, 100집에 한두 집은, 특히 여기는 너무 많지. 여기 너무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구술자: 그 기여를, 한 거야. 어떻게 보면, 물론 공해 회사지만, 나름대로 주민 삶이, 공기만 마시고 살 수는 없잖아? 밥도 먹어야지.

면담자: 근데, 그때는 공해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나중에 보니까.

구술자: 우리는, 굴뚝 산업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장을 막 짓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와, 또 제대로 도시가 돌아가는 것 같고, 국가가 된다고 그랬지. 농업 국가에서 공급 국가로 가야 되잖아?

면담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느낌이었네요.

지원자: 대통령들도 순시하러 오면, 선글라스 끼고 굴뚝 봤잖아?

구술자: 시대가 많이 변했네. 변하면서 또 이런 환경 얘기를 거치고 되고, 복합적으로 보게 되는.

면담자: 그러면, 이 질문이 지금 제가 여쭙보고 싶은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동양제철화학이 여기 지금 미추홀구로 구멍이 바뀌었잖아요. 남구, 미추홀구에 끼친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술자: 규모상으로는 이쪽으로 쪽 있었는데, 제일 큰 회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취업을 해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됐겠죠. 세수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됐을 테고. 부정적인 거라면, 딱히 얘기하자면 공해 문제지 뭐, 그거는 공해 문제, 다 아는 얘기니까, 그 굴뚝 산업은, 어디나 공해 문제가 있고,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남구가 어차피 인구도 늘어서, 이렇게 크게 발전했다는 건, 많은 기여가 된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남구에서 신도시를 만들 수가 없잖아?

면담자: 그렇죠. 갑작스럽게 생기는 어렵죠?

구술자: 그럼요. 그리고 또 남구에다가, 또 청사도 기부채납, 이익 중에 일부뿐이지만, 어쨌든간에, 그것도 구청 입장에서는, 큰 예산이 천억. 내가 알기로는, 천억 가까이 청사를 지으려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그 당시만 해도, 5, 600억 들었어요. 내가 오래전에, 그 남구청을 지려고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¹⁷⁾정명환 청장이 있을 때.

면담자: 예산을 예측해 보셨네요?

구술자: 예산도 보고, 설계도 다 해봤어요. 가(假) 설계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IMF가 오고,

17) 인천시 남구청장으로, 재임 기간은 1998년 7월 ~ 2002년 6월(민선 2기 인천 남구청장)이었다.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캔슬(Cancel)됐지. 그거 계획을 세웠다가 캔슬(Cancel)됐고, 세월이 또 흘러서 구청에서 계속 신축을 하려고 그런 시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보류됐다가, 이제 여기서 지어준다니까 굉장하.

면담자: 받으셔야죠.

구술자: 당연히 받아야지. 그거는 고마운 거지. 기업 입장에서는, 기여한 거지 뭐.

지원자: 근데 그런 기여는 인정하는데, 사실 여기서 동양화학 근방은, 살림하고 사는 곳이 없었죠. 18)호미마을 이쪽으로 그 외에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호미마을 쪽에는 거의 많이, 다 암으로 다 돌아가시고, 현재도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암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지금 개발 안 되고, 있는 게, 호미마을만,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가 제일 가까운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거기가 다, 조금만 넘어가면 유흥가 쪽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19)흥어마을에는, 사람이 살지는 않았어. 지나가는 길목이었죠. 다 그리고 유일하게 살림하는 곳이, 거기 거든. 문학산 올라가는 거기에서는, '계속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로 딱 단정을 못 짓는 이유가 또 있겠죠?

면담자: '하지만, 영향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지원자: 이제 우리 여기 오래 산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걸' 하는 느낌은 있는 거예요. 그 기억 날 거, 여기 농약 공장도 있잖아. 한국농약.

지원자: 한국 농약도 유해물질이라는 데 거든. 농약 거기도, 크기가 한 5천 평 됐을걸. 공장이. 한국 농약이라고 있었어. 여기.

지원자: 아,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어떤 회사인지가 지금 헛갈려서, 그게 그런 것들은, 땅에 남아도 금방 뭐를 짓거나 하지 못한다고, 문학산 올라가는 꼭대기도, 사실 비행장, 비행기 앉히려고 그 유류를 파묻어 놓고, 그런 게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

지원자: 그래서, 역으로 그때 한번 강의 들었을 때, 보니까 오히려, 어디죠? SK스카이뷰나, 이렇게 유공, 이런 기름이 새어 나와서, 오히려 정확한 데가 깨끗한 땅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히려 역으로. 그냥 농담처럼 하시더라고요.

구술자: 난 현장 들어가 봤어요. SK 할 때, 국장이니까 현장 가서 땅 파고 그러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 다 파서, 그것도 옮겨서.

면담자: 어떤 상황인지, 다 보시고?

구술자: 봤는데, 그것도 2년 걸렸을 걸? 여기는 SK, 한 2, 3년 걸려서 했을 거야.

면담자: 기름이 너무 안 없어져서, 기름 먹는 미생물을 풀어서, 그것까지 풀어서 정확했다라고

18) '좋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을'이란 뜻의 호미마을은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노적산로 주변에 위치한,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공동체 골목이다.

19) 1978년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노적산 기슭 인근에 흥어 전문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거리의 흥어마을은, 충청남도 대천 출신 김찬례 씨가 흥어무침과 조갯국을 내놓으면서 시작되었다.

하시더라고요.

구술자: 현장은, 한, 두어 번 갔던 기억이 나. 나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잘 없으니까.

면담자: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업무를 하셨네요. 트렌드(Trend)를 쫓아서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